

22573323 이윤지

독도의 역사적, 국제법적 소유권 근거

과제 제출

독도 소개

독섬·돌섬이라고도 하며, 면적은 18만 7,554㎡이다.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.4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, 동도(東島)·서도(西島)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. 동도는 동경 131° 52′ 10.4″, 북위 37° 14′ 26.8″에, 서도는 동경 131° 51′ 54.6″, 북위 37° 14′ 30.6″에 위치한다. 동도·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(水道)를 이룬다. 동도는 해발고도 98.6m, 면적 73,297㎡, 둘레 2.8km 이고, 서도는 해발고도 168.5m, 면적 88,740㎡, 둘레 2.6km 이며, 부속도서 89개의 면적은 25,517㎡이다.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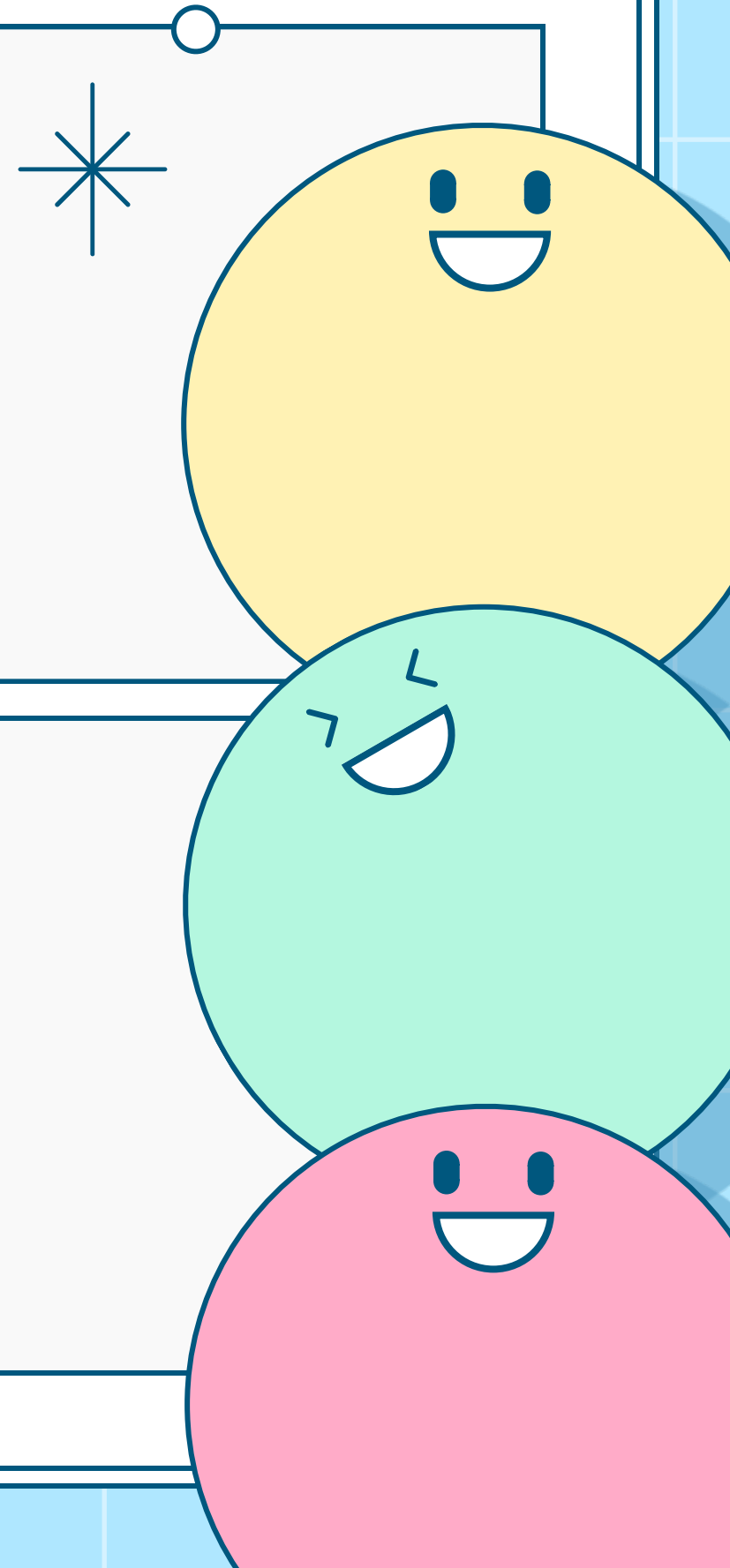
독도 명칭 의 유래

우산도

- 신라시대와 고려시대, 조선 초기까지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다.
- 삼국사기에는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(지금의 울릉도 + 독도)을 복속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음
-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함께 언급되었음
-> 이때는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다뤄짐

삼봉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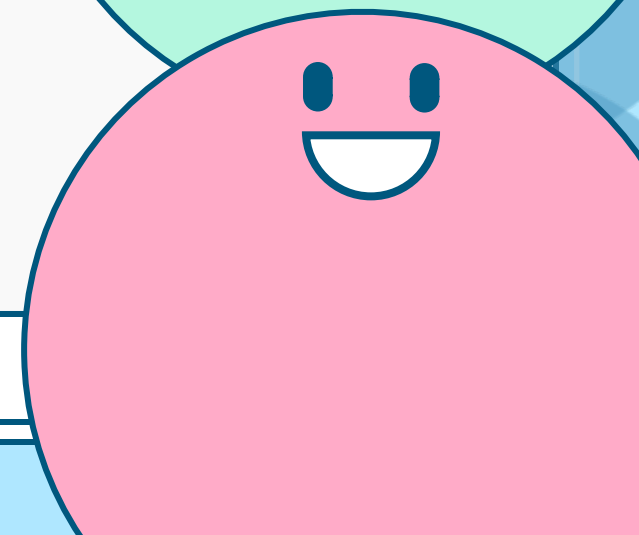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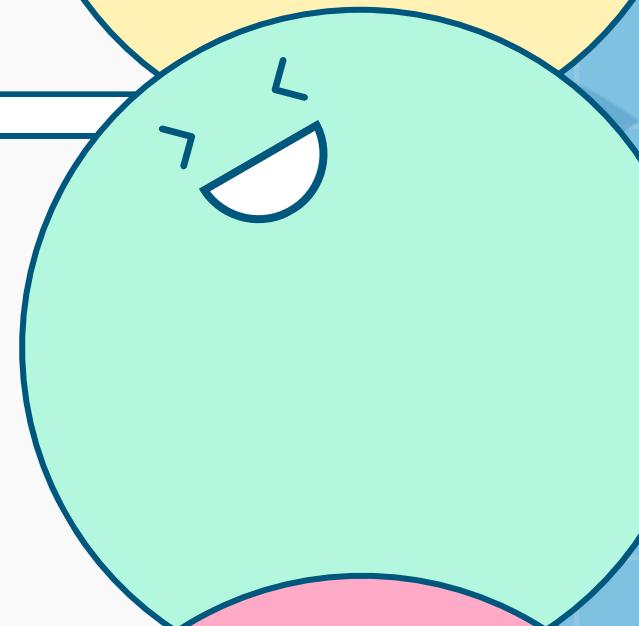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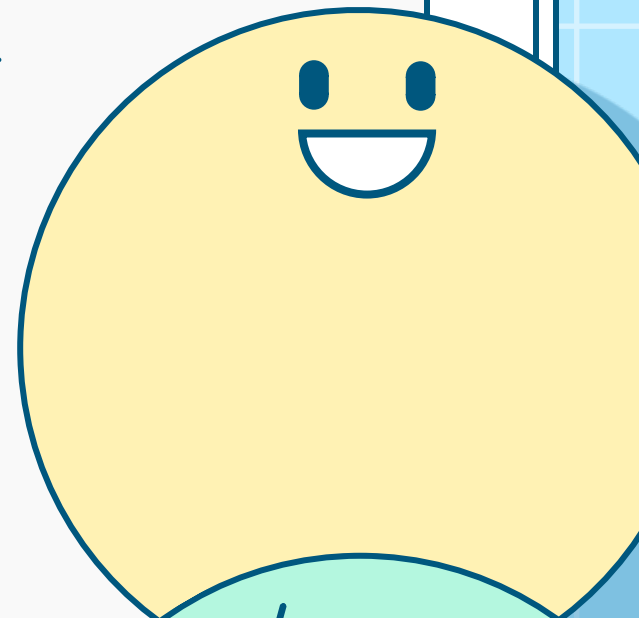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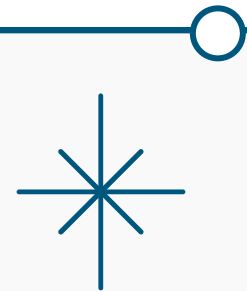
- 독도는 바위가 3개 솟은 것처럼 보여서 삼봉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림
- 조선시대의 여러 해도(바다 지도)에 이런 이름이 나옴



독도 명칭 의 유래

석도

- 바위(돌)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으로, 석도라고도 불림
- 특히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(1900년)에서 울도군 관할 구역에 석도를 포함시켰다는 표현이 등장함
-> 여기서 석도는 독도를 가리킴



독도

- 현재 쓰는 이름인 독도는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
- 독는 홀로있다라는 뜻임. 주변에 다른 섬이 없어 외롭게 바다에 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
- 특히 경상북도 울릉도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독도라고 불렀고, 이후 공식 명칭으로 굳어짐

삼국시대와 독도(이사부 장군 512년)

시대적 배경과 우산국 정벌

6세기 초 신라, 영토 확장 중 동해 해상에 위치한 우산국(울릉도와 독도 포함)은 신라에 복속 되지 않은 독립 세력이었다.

이사부 장군이 신라 지증왕(512년)의 명을 받아 우산국 정벌을 맡음

이사부 장군은 무력 대신 심리전을 선택함

-> 나무로 만든 사나운 짐승(사자상)을 이용해 우산국을 협박

=큰 전투 없이 우산국을 항복 시킴

삼국시대와 독도(이사부 장군 512년)

삼국사기의 기록과 독도 편입

삼국사기 지증왕 13년 기록:

"나무로 만든 사나운 짐승으로 우산국을 항복시켰다"

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였음

-> 우산국은 신라 복속 = 독도의 신라 편입을 의미함

512년 사건은 독도가 신라 영토가 된 최초의 공식 기록이자 오늘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임

삼국시대와 독도(이사부 장군 512년)

결론 및 역사적 의미

이사부 장군, 무력 대신 외교적 전략으로 동해 해역을 확보
독도와 울릉도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킨 공로

역사적 의미:

- 한국이 독도를 가장 먼저 통치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
-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제공

= 512년, 신라가 독도와 울릉도를 공식적으로 영토화 했다.

고려시대 독도 관련 기록

고려사와 독도

"고려사" 지리지 기록(고려사, 1145년 편찬)

' 울릉도와 우산도가 울진현 동쪽 바다에 있다 '

'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'

해석

- 우산도는 현재 독도를 의미함
-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로 인식되어 있었고 울릉도와 독도는 상호 연관된 지역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보여줌
- 고려는 독도(우산도)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고 있었음
-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 안에 포함

고려시대 독도 관련 기록

고려의 독도 관리와 정책

- 고려는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음
- 고려 초에는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했으나, 왜구의 침입으로 주민들이 육지로 이주하게 됨
- 그러나 영토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관리함

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독도 영유권 관리

조선 초기 : 세종실록지리지(1454년)

세종실록지리지

편찬 연도 : 1454년(세종대왕 시대)

기록 내용 : ' 울릉도와 우산도는 본래 한 섬이었으나,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. '

해석

- 우산도는 독도를 의미함
-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초기부터 한국 영토로 확립된 상태였고, 이 시기에도 두 섬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리되었음을 알수있음
- 조선 초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섬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조선의 영토로 확립하고 관리했음

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독도 영유권 관리

조선 중기 : 신증동국여지승람(1530년)

신증동국여지승람

편찬 연도 : 1530년(중종 때)

기록 내용 : ' 울릉도는 울진현 동쪽 바다에 있고, 우산도는 울릉도에서 50리(약 200km) 떨어져 있다. '

해석

- 우산도는 독도로 여전히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짐
-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중기에도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울진현 소속으로 기록됨
-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조선 중기에도 명확히 관리되고 있었고 독도와 울릉도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 다루어졌음

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독도 영유권 관리

조선 후기 : 울릉도 및 독도 관리 정책

- 조선 후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로 유지되었고 관리가 계속되었음
- 1647년(인조 25년) : 울릉도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리 체계 설정
- 1696년(숙종 22년) : 강원도 울진군과 경상도의 관리 하에 두 섬을 포함한 영토 관리 강화

특징

- 왜구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군사를 파견했고, 독도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음

= 조선 후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중요한 해양 영토로 인식되었고, 왜구의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및 행정적 관리가 이루어짐

안용복 사건(1693년~1696년)

배경

- 시기 : 1693년(숙종 19년) ~ 1696년(숙종 22년)
- 장소 : 울릉도와 독도, 일본
- 주요 인물 : 안용복(조선의 어민 겸 외교관)
- 사건의 원인 :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며 조선 어민들을 폭행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무단 침입을 시작하면서 발생

안용복 사건 (1693년~1696년)

안용복의 활동

1)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범

-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서 조선 어민들을 괴롭히고 조선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데 방해 함
-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며 조선 어민들을 폭행하거나 납치하는 일이 발생

2) 안용복의 외교 활동

-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 어민의 폭력 행위와 침탈을 막기 위해 자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됨
- 1693년 일본 에도(현재 도쿄)로 가서 막부와 협상하면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함

3) 일본의 공식 답변

- 일본 정부는 처음에 안용복을 감금하고 조선의 영토 주장을 부인했지만 결국 조선의 주장을 인정
- 조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명백한 인정은 없었지만 이후 일본 어민들의 침범과 폭력 행위를 중지시켰다는 기록이 있음

안용복 사건 (1693년~1696년)

결과와 의미와 역사적 의의

- 1696년 일본은 조선의 항의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 어민들의 독도 근처 활동 금지를 선언
 - 안용복은 조선의 영토로서 독도를 지키고자 했으며 이 사건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로 남음
 -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, 일본은 공식적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일부 인정
 - 독도 수호의 중요한 사례로 조선의 영토로서 독도를 주장한 첫번째 공식적 외교적 대응
 - 이 사건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으며,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의 역사적 유산으로 확고히 다지게 한 사건이었다.
- = 일본은 19세기 후반까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고 안용복 사건은 조선이 독도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으로, 후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이어졌다.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(1910-1945)

일제 강점기 초반 : 독도의 일본 영토화 시도(1910년대)

- 1910년 8월 22일 : 한일병합조약(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) 체결
-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침탈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시도를 시작함

일본의 초기 독도 침탈

- 1910년 대 초반 :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며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함
-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기 영토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업 활동과 등대 설치 등 실질적인 점유 활동을 시작함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(1910-1945)

일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거짓 정보 유포(1920-1930)

1920년대 : 일본의 독도 강점

- 1920년대 : 일본은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 영토로 강제 점유하기 위한 법적, 정치적 시도를 강화함
- 일본 어민들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활발히 벌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함

1930년대 :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

- 1930년대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퍼뜨렸음
-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세계적 차원에서 넓혀가려는 시도를 계속함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(1910-1945)

일제 강점기 말기 : 독도의 실질적 지배(1930-1945)

1930년대 후반 :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

- 1930년대 후반 : 일본은 독도를 행정적으로 일본의 시마네현에 속하는 섬으로 지정하고 어업권을 부여하며 실질적 지배를 강화함
- 일본 제국주의의 강력한 침탈 정책에 따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기 영토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 내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 함

1940년대 : 독도의 완전한 일본화 시도

- 1940년대 초반 : 일본은 독도에 등대 설치를 완료하고 일본의 영토로서의 지배를 완벽하게 확립하려 했음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(1910-1945)

독도의 일본 영토화 시도와 한국의 대응

한국의 대응

- 일제는 독도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여전히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
- 그러나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조선이 독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없었고, 독도 문제는 일본의 강점 하에 있었던 한국의 영토 침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음

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

- 일본의 독도 점유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도를 자기 영토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고, 독도 수호 의지는 해방 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됨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(1910-1945)

해방 후 독도 문제

- 1945년 8월 15일 :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며 한반도는 해방됨
해방 후,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무효화되고, 독도는 한국 영토로 확립됨
-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계속했고, 이는 일본의 독도 반환 주장으로 이어짐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(1910-1945)

일제 강점기 독도 상황의 역사적 의의

-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, 정치적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부당한 영토 침탈이었고 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함
- 독도는 한국 영토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침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유권이 계속 주장됨

러일전쟁과 독도 영토 침탈

러일전쟁의 개요

- 발생 시기(1904년 2월 ~ 1905년 9월)
- 전쟁 당사국 : 일본 vs 러시아
- 배경 :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두 나라가 충돌
- 결과 : 일본 승리 ->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강화

러일전쟁과 독도 영토 침탈

러일전쟁 중 독도의 전략적 가치

-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, 군사 감시와 해상 작전을 수행하기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음
- 일본은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독도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낌

일본 해군의 독도 이용 계획

- 일본 해군은 독도에 망루(감시탑)를 설치하려고 함(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고, 해상 작전 지원을 위해)
- 독도에 군사 시설을 추진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함

러일전쟁과 독도 영토 침탈

러일전쟁 중 독도의 일본 강제 편입

-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
- 이때 일본이 사용한 이름이 다케시마임

주요 이유

- 일본은 독도를 러시아 함대 감시용 군사 기지로 삼고자 했음
- 독도를 통해 동해의 제해권(해상 지배권)을 확보하려 함

문제점

- 이 편입은 조선 정부에 어떤 통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국제법상 불법적 행위였음

러일전쟁과 독도 영토 침탈

러일전쟁 당시 독도 이용 구체 사례&러일전쟁과 독도 강탈의 역사적 의의

- 일본 해군은 독도 주변에서 망루 설치, 정찰 활동, 해상 감시 등을 수행함
- 러시아 함대 동향을 파악하고, 대한해협을 통한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견제하는 데 독도를 활용함
- 독도는 군사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, 전쟁 후에는 일본의 영토 주장을 강화하려는 수단이 되었음
-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 침탈을 본격화했고 독도를 군사적 필요 때문에 먼저 점령함
- 독도 강탈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명백한 침탈 행위임
- 이후 한일병합(1910)까지 이어지며 독도 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와 연결된 사건이 된다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영유권 논쟁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개요

- 체결 일자 : 1951년 9월 8일
- 발효 일자 : 1952년 4월 28일
- 목적 :
 - 1)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식민 지배 청산
 - 2) 일본의 주권 회복과 패전 처리
 - 3) 일본과 연합국 간 평화조약 체결
- 주요 내용 :
 - 1)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, 대만, 남사할린, 쿠릴 열도 등을 포기한다고 명시
 - 2) 하지만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음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영유권 논쟁

조약에 나타난 독도 문제

- 조약 본문에는 일본이 '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'고 명시하면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 목록을 열거함
- 그러나 울릉도, 제주도, 거문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음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영유권 논쟁

한국과 미국의 입장

대한민국 입장

- 독도는 본래부터 한국 영토였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
-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당연히 영토로 귀정속된다는 해석

미국의 입장

- 초기에 미국(특히 애치슨 국무장관)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려 했지만 조약 최종본에서는 모호한 표현을 남기게 됨
(냉전 체제 속에서 일본을 빠르게 재편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)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영유권 논쟁

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대응

일본 주장

-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

한국 대응

- 1948년 건국 이후 독도를 꾸준히 관리해왔고 1952년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(이승만 라인)선포로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선언함
- 이후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며 실질적 지배를 강화함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영유권 논쟁

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의 역사적 의의

- 조약 자체에는 독도 명시 없음 -> 분쟁의 씨앗이 됨
- 하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, 지리적 근거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함
-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모호성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됨

독도,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시작

독도 실효적 지배 시작 배경

- 광복 후(1945년),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한국은 독립을 맞았지만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여러 분쟁이 일어남
- 특히 독도는 일본과 한국 간의 영유권 갈등의 중심지로 남았으며 일본은 독도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

독도,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시작

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 시작(1948년)

-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독도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느낌
- 이 해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부속 섬으로 명시되고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함

주요 조치

- 1948년 1월 : 울릉군청은 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경찰 순찰과 행정 절차를 시작함

독도,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시작

독도 경찰 주둔(1952년)

- 1952년 : 이승만 정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립하기 위해 평화선(이승만 라인)을 선언하고 이 선 안에 포함된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을 공표함
- 1952년 1월 18일 :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언하면서 독도가 이 선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주장하며 경찰을 독도에 배치함

경찰의 역할

- 1954년부터는 독도에 경찰서를 설치하여 경찰들이 상시 주둔하면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함
- 독도 경찰서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독도의 치안 유지와 행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

독도,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시작

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

- 1950~60년대 :
독도에 대한 군사적, 경찰적 관리를 강화했으며 독도에 대한 상주 주민도 늘어남
- 1960년대 이후 :
독도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논리를 마련하고 독도의 한국 영토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나감

독도,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시작

현재 상황

- 현재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행정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경찰서를 두고 상시 주둔하며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
- 독도는 한국의 법적, 행정적, 군사적 통제 하에 있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토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

독도 수호의 역사적 정당성과 그 의미

역사적으로 확고한 한국 영토

- 삼국 시대부터 기록된 독도
 - >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(울릉도, 독도) 을 복속시킴
- 고려시대 '고려사'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고려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
- 조선시대 공식 문헌
 - > '세종실록지리지', '신증동국여지승람', '동국문헌비고' 등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시
- 안용복 사건(1693~1696): 일본에 가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, 일본 정부도 이를 일부 인정

= 독도는 수백 년간 한국이 실효적 지배해온 고유한 영토이며, 역사적 문헌과 지도로 이를 뒷받침함

독도 수호의 역사적 정당성과 그 의미

국제법상 정당한 권리

-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(1951) : 일본의 식민지 포기를 명시했으나 독도는 빠져 있어 일본이 이 틈을 주장함
-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
 - > 1948년부터 행정 관리
 - > 1952년 이승만 라인 발표
 - > 1954년 이후 경찰 상주
 - > 현재까지 등대, 기상 관측소, 시설물 등 실질적 관찰
-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우선
 - > 독도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적으로도 영토 주권을 행사 중

독도 수호의 역사적 정당성과 그 의미

독도 수호의 상징적 의미

- 민족 자존의 상징
 - > 일제 강점기의 아픔과 일본의 영토 야욕에 대한 역사적 대응
 - > 독도는 국토 수호와 독립의 상징
- 주권과 안보의 전초기지
 - > 동해상 해양 자원, 어업권,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성
 - >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. 국가 안보와 자원 주권의 핵심
-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와 영토
 - > 독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지켜야 할 유산

독도 교육과 국민 인식

역사 속 독도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

-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한국 영토로 인식되어 왔고 조선시대 문헌과 지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
-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일본은 독도를 몰래 편입(1905년)하고, 식민지 교육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약화시킴
- 즉, 일제는 단지 영토만이 아니라 기억과 인식까지 지우려는 시도를 했음

독도 교육과 국민 인식

광복 이후, 독도 교육의 시작과 중요성

- 광복 후에도 한동안 독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았음
-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시작했지만 교육은 체계적이지 않았음
-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 속에서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의 문제로 인식됨

= 독도 교육은 국토 수호 교육이자 역사 교육의 연장선

독도 교육과 국민 인식

현대 교육의 변화와 강화

- 1990년대 이후: 일본의 독도 도발(교과서 왜곡, 영유권 주장 강화)로 인해 교육부와 지자체 주도의 독도 관련 교육이 점차 확대됨
- 주요변화
 - > 2000년대 : 초, 중, 고 교과서에 독도 내용 강화
 - > 독도 체험학습, 독도 방문 연수 확대
 - > 독도 사랑 ucc, 공모전, 자료 배포 등 국민 참여형 교육 진행

=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역사 인식 + 주권 의식 + 국제 감각을 함께 갖추게 하는 것

독도 교육과 국민 인식

국민 인식의 변화

- 2000년대 이후, 국민 다수가 "독도는 한국 땅" 이라는 인식 확고
-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역사적 근거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
- 여론조사 결과
 - >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응답한 비율이 90% 이상이면 왜 한국 땅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낮음
 - = 정확한 역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정적 대응에 머물 수 있음 ->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

독도 교육과 국민 인식

교육의 과제와 방향

- 단순한 우리 땅 교육을 넘어서 문헌, 지도, 사료 기반의 역사적 교육이 필요함
- 국제법, 외교사적 흐름, 일제 강점기 역사 등과 연결한 종합적 접근 필요
- 청소년 대상의 창의적, 참여형 독도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

22573323 이윤지

Thank you

